

Pitch

The background is a photograph of a library or bookstore. In the foreground, there are wooden bookshelves filled with books. Some books have white spines with black text, while others have colorful covers. In the background, there are framed paintings on the wall. One painting shows a man holding a child. Another shows a landscape with trees. A large, bright yellow abstract shape, resembling a stylized letter 'P' or a similar form, is overlaid on the image, partially obscuring the bookshelves and pain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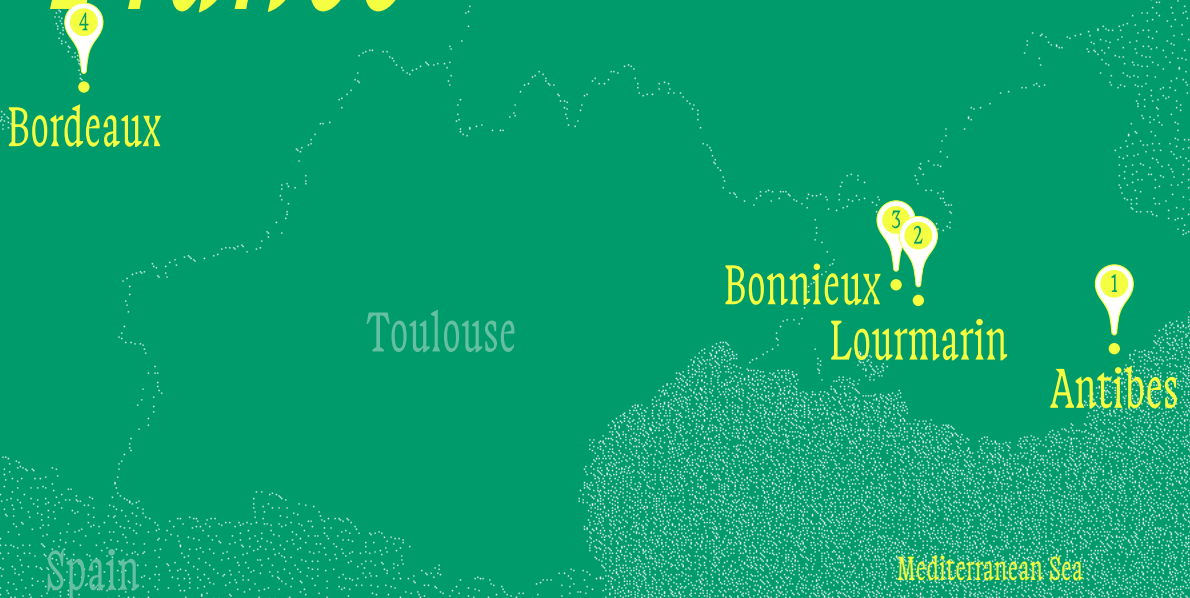
Pitch by Magazine

Travel Commentary

Issue No.16

남프랑스의 지속 가능한 호텔
코르다쥐르부터 보르도까지, 남프랑스의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스테이.
클 표영소

Escape to Conscious Luxury in *Southern* *France*





루르마랭 추천 여행법

뤼베롱(Luberon)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루르마랭은 올리브나무와 아몬드나무, 라벤더와 포도밭에 둘러싸인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엑상프로방스에서 차로 40분, 아비뇽에서 50분 거리로, 프로방스 전원 풍경을 감상하며 하이킹이나 자전거 여행을 하려는 이들이 즐겨 찾는다. 아담한 마을 중심부에 작은 광장과 카페, 레스토랑이 모여 있고, 좁은 골목 양옆으로는 옛 건물이 늘어서 있다. 대표 명소는 마을 서쪽을 지키고 있는 루르마랭 성(Château de Lourmarin). 15~16세기에 지은 프로방스 최초의 르네상스 양식 건축물로, 당시의 가구와 악기, 서적 등이 남아 있으며 마을과 주변 풍광을 감상하기에도 좋은 장소다. 루르마랭은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가 말년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카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무덤을 찾아가보자.



Le Galinier, Lourmarin

② 르 갈리니에르

프로방스에 전원 별장을 두고 휴가를 즐기는 삶은 어떤 걸까? 뤼베롱 지역의 작은 마을 루르마랭에선 그 답을 살짝 맛볼 수 있을지 모른다. 르 갈리니에르를 찾은 이들은 18세기 대저택에 머무는 동안 집은 물론, 약 3헥타르 면적의 부지를 오롯이 소유하게 된다. 이용 방식도 여느 숙소와 같지 않다. 체크인을 하려면 투숙객에게만 공유하는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거대한 철문을 여는 것이 순서. 정원을 가로질러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갈색 테라코타 지붕을 얹은 따뜻한 색감의 건물이 서너 채 들어서 있고, 주변으로 키 큰 수목과 너른 풀밭, 화단 그리고 야외 수영장이 어우러진다. 본채 1층에 리셉션과 라운지, 조식당을 겸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객실은 2인실과 4인실 객실, 최대 6인까지 수용 가능한 독채로 나누는데, 목재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된 천장과 정원이 내다보이는 커다란 창,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가구, 사랑스러운 패브릭과 소품 등 모든 것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디자인과 색감으로 프로방스 라이프스타일의 정수를 보여준다.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 바깥 세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채 프라이빗한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 양중맛은 새소리로 잠에서 깨고, 촉촉하게 이슬을 머금은 정원에서 산책을 즐기며, 야외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무료하게 보내는 오후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www.beaumier.com/en/properties/le-galinier

©Le Galinier, Hur Taewoo



Capelongue, Bonnieux

3 카펠롱그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추구하는 유럽 부티크 호텔 브랜드 보미에르(Beumier)가 루르마랭과 함께 선택한 또 하나의 프로방스 마을은 보니외다. 루르마랭에서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20여 분을 달리면, 해발고도 420미터의 퀴베롱 산비탈에 들어앉은 보니외에 이른다. 마을 인근의 양지 바른 언덕을 차지한 카펠롱그는 산과 계곡을 아우르는 퀴베롱의 자연과 프로방스식 환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하늘과 맞닿은 약 2만 제곱미터의 탁 트인 대지에 프로방스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리셉션, 57개의 객실과 스위트 룸, 카페, 레스토랑 등이 현지 돌과 나무를 사용한 프로방스 전통 양식의 건물 여러 채에 나뉘어 있고, 그 주위로 야외 수영장과 스파 시설, 정원과 텃밭이 자리한다. 목재 가구와 뉴트럴 톤의 패브릭, 갈색 테라코타 타일 등으로 꾸민 객실은 프로방스의 미감을 살리는 한편, 현대함과 편리성을 더했다. 호텔 내 2개의 레스토랑도 카펠롱그를 방문해야 할 이유 중 하나다. 미쉐린 원스타에 빛나는 라 바스티드(La Bastide)와 장작 오븐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라 베르제리(La Bergerie) 모두 육류부터 해산물, 채소, 유제품까지 남프랑스에서 생산된 식자재로 지중해 미식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세면용품은 물론, 와인과 맥주 등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료 역시 현지에서 공수한 제품을 사용하며 지역 문화와 자연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www.beumier.com/en/properties/capelongue-hotel

©Capelongue

보니외 추천 여행법

경사지를 따라 오르락내리락 이어지는 골목길을 거닐며 유서 깊은 퀴베롱 산골 마을의 지난 세월을 헤아려보자. 마을 구석구석을 파고 드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는 동안 고풍스러운 중세 건축물과 칼라봉(Calavon) 계곡, 방투스산(Mont Ventoux) 등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다.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감상하고 싶다면 마을 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보니외 오르 성당(Eglise Haute de Bonnieux)을 추천한다. 라코스트(Lacoste), 아파트(Apt) 등 퀴베롱 지역의 주변 마을을 포함해 루르마랭 협곡(Combe de Lourmarin)과 3그랑 퀴베롱(Grand Luberon)까지 시야에 담긴다. 하이킹과 자전거 투어 외에 승마, 클라이밍, 골프 등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주변에 포도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 와인너리 투어를 떠나기에도 좋다.



3 퀴베롱 지역은 크게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맥 동쪽의 그랑 퀴베롱, 루르마랭과 보니외가 속한 서쪽의 프리 퀴베롱(Petit Luberon), 산맥 동쪽 끝의 낮은 지대에 속한 퀴베롱 오리앙탈(Luberon Oriental)로 나뉜다.